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확대회의의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의 지도

은 나라 인민이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이 되는 올해를 우리 식 사회주의 발전행로에서 획기적인 국면을 열어놓는 해로 빛내기 위한 거창한 혁명적대진군을 다그쳐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확대회의의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원수님께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확대회의에서는 조선혁명발전의 관건적인 시기에 조성된 대내외정세속에서 국가방위력과 전쟁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해야 할 필수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나라의 정치적안정과 자주권을 철저히 보위하며 적대세력들의 지속적인 크고작은 군사적위협들을 믿음직하게 견제할수 있도록 전반적공화국무장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비약시키기 위한 중요한 군사적대책들과 조직정치적대책들이 연구토의되었으며 조직문제가 취급되었다.

확대회의에서는 인민군대를 비롯한 전반적공화국무력의 군사정치활동에서 나타나고있는 일련의 편향들에 대하여 총화분석하고 그를 극복하고 결정적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방도적문제들과 무력구성에서의 불합리한 기



구, 편제적결함들을 검토하고 바로잡기 위한 문제, 자위적국방력을 급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부대들을 조직편성하여 위협적인 외부세력들에 대한 군사적억제능력을 더욱 완비하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되었다.

확대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군사로선과 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부문별과업들이 다시한번 강조되었다.

확대회의에서는 국가무력건설과 발전

의 총적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조선인민군 포병의 화력타격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확대회의에서는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장을 선거하고 일 부 위원들을 소환, 보선하였다.

확대회의에서는 무력기관의 주요직제지휘성원들을 해임 및 조동하고 새

로 임명할데 대한 조직문제가 취급되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정면돌파전의 위대한 승리의 첫해로 빛내이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인민군지휘성원들의 헌신과 노력을 높이 평가, 격려하며 주요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확대회의에서 인민군대안의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

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실현하며 군사, 정치, 후방, 보위 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철두철미 당의 사상과의도에 맞게 조직진행해나가기 위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면서 공화국무장력이 군사정치활동에서 항구적으로 견지해나갈 중요문제들과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토의결정된 새로운 군사적대책들에 관한 명령서들과 중요군사교육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기구개편안에 관한 명령서, 안전기관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군사지휘체계를 개편할데 대한 명령서,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한 명령서를 비롯한 7건의 명령서들에

신필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직지도하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확대회의는 조선로동당의 탁월한 군건설사상과 전략적구상대로 혁명적무장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민족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무적의 군사력으로 더욱 역세게 추동하기 위한 굳건한 기틀을 마련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된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새 기술, 새 제품개발에 이바지하는 많은 산업미술도안 창작

올해에 들어와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사회주의문명을 꽃피우는데 이바지하는 제품도안, 상표도안이 수없이 나왔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우리 식의 수확고관정무인기도안을 완성하였으며 응용분야가 넓은 3차원인쇄기, 연료소비량을 줄일수 있는 난방식기이로를 비롯한 제품도안들도 내놓았다.

최신과학기술보급의 거점인 과학기술전당에서 도서 자동편집화상입력기, 삼지연시과학기술도서판 카드도안 등을 실용적이고 편리하게 제작하여 최신기술자들의 수자화와 보급사업에 리용하도록 하였다.

평양화장품공장, 원산구 두공장, 류원신발공장을 비롯한 공장들에서는 도안창작실, 도안실을 훌륭히 꾸리고 창작력량을 강화하여 인민들이 즐겨 찾을수 있는 많은 인기상품도안을 창안하였다.

평천구역도시건설대에서 내놓은 여러가지 형태의 보도블록도안은 도로의 면모를 일신시키는데 이바지하였으며 민들레학습공장에서도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취미에 맞으면서도 학습의와 애국심을 키워줄수 있게 창안한 새로운 학습장표도안들이 호평을 받고있다. 상표도안을 다양하고 특색있게 창작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맛고 건강에 유익한 강병이차상표도안 등을 높은 수준에서 완성한 평양강병이차공공에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면서도 우리의것에 대한 긍지와 애착심을 가질수 있도록 상표도안들을 부단히 혁신하고있다. 룡성고기가공공장에서 물고기공공들에 대한 통줄임상표도안들을 감칠맛이 나게 창작하였으며 장자산 종합식료공공에서는 고품격자료를 비롯한 여러 과자상표도안을 간결성과 집중성, 상징성이 보장되게 만들었다.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새도안창작열풍은 날이 갈수록 더욱 세차게 일어번지고 있다.

본사기자

평양종합병원건설에 펼쳐나선 건설자들이 콘크리트기공사량의 76% 이상을 수행하고 20층에 달하는 입원병동

2호동의 골조공사를 끝낸 기세를 늦추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건설연합상무에서는 건설기공과 자재보장 등을 적극 선형시키면서 모든 단위가 시공규정과 공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건설물의 질과 속도를 철저히 보장하도록 공사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입원병동 2호동 골조공사를 끝낸 건설자들은 드넓은 면적에서 콘크리트기공이 진행되는데 맞게 립체전, 전격전을 들이대며 날마다 높은 공사실적을 기록하고있다.

공사장에서는 대형화물자동차들의 실동률을 높여 자재보장을 확고히 앞세우는 한편 현장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성능높은 혼합설비들을 일식으로 갖추어놓고 합리적

하루가 다르게 키돋움하며

—평양종합병원 건설장에서—

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과감한 돌격전을 들이대고있다. 공사장에서는 또한 단위별, 작업반별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며 맡겨진 공사과제수행에서 높은 실적을 올리고있다.

건설자들은 혼합물의 배합비율을 과학기술적으로 정하고 질적지표의 정확성을 철저히 보장하는것과 함께 휘틀 및 철근조립 등을 선형시키고 압송기와 압송기차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말은 대상건설에서 립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기계공업성 산하단위에서도 평양종합병원건설장에 보내줄 설비, 자재생산에서 립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평양326전선종합공장 평양전동기공공에서는 필요한 부

속품, 부분품 등을 확보하고 기능공력량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설비들의 가동률을 끌어올림으로써 5월 설비생산과제를 기한전에 결속하였다.

안주뿔프공공에서는 주물

품생산을 선형시키고 단조품생산과 가공, 뿔프조립속도를 높여 월 뿔프생산계획을 초과완수하였으며 평양베아링공공, 량책베아링공공에서는 대상설비제작에 쓰일 각종 규격의 베아링을 짧은

시간에 생산하였다.

한편 경성예자공공에서는 원료, 자재보장을 확고히 앞세워 예자생산에서 혁신적성과를 기록하고있다.

전인민적인 자력갱생대진군에 활력을 부여주며 평양종합병원건설자들은 공사과제수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발전과 부흥의 길

공화국의 전체 인민이 예극의 승결과 발전을 함께 하고 있다. 공장과 건설장, 농촌, 과학연구기지 등 온 나라 어디서나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생산물, 재부들을 내놓고 있다.

함경북도에서는 김책체철련합기업소, 성진체강련합기업소, 청진체강소를 비롯한 금속공업부분이 들끓고 있으며 자체로 만든 새형의 무궤도전차, 버스들이 거리를 달리고 있다. 어량천3호발전소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경성도자기공장, 수성천종합식료공장, 중평남새온실농장에서 생산이 확대되고 있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신의주화장품공장, 신의주방직공장, 평북태지공장, 신도군갈증합농장 등 평안북도의 기계공업, 경공업, 축산업, 농업부분에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생산적 양양을 일으키고 있다.

함경남도, 자강도, 강원도 등 다른 지방들에서도 건설과 산업시설의 현대화, 생산공정들의 개선, 생산물의 질개선에 혁신적 성과들이 연이어 이룩되고 있다. 교육, 보건, 문화에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

환이 일어나고 있다. 도와 시, 군을 비롯한 지방들이 자기의 지역적특성에 맞는 발전정책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균등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국가의 전면적, 전반적발전을 안받침하고 있다.

지방들에서 경제발전이 가속화되고 인민생활이 향상될수록 온 나라가 발전하고 흥하는 것으로 된다.

학생들이 리용하는 가지각색의 학방은 다 자기 지방들에서 생산한 제품들이다.

두해전 7월 어느날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원산영예군인가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을 때였다.

학생가방생산정형을 일일이 알아보시고 여러가지 가방제품을 보신 그이께서는 가방의 질을 높이고도 할데 대하여 이르시면서 각 도의 가방공장에서 생산하는 가방의 질적수준이 꼭갈게 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 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도 제품의 가지수가 많고 제품포장과 상표도안수준이 현저히 개선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공장의 제품들이 도적인 범위를 벗어나 전국각지로 퍼져가고 증상의 식료공장제품 못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있는데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전국적인 식료공장들사이의 제품경쟁을 활발히 벌려 따라올 수 있도록 할데 대하여 당부하시었다.

어느 지방이나 튼튼한 인적자원과 물질기술적토대, 풍부한 자연부원이 있다. 군들만 하여도 시간지대, 중간지대, 벌방지대, 해안지대 할것없이 어느 지역에서나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복리를 향상시킬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량강도와 평안북도, 함경북도와 자강도, 평안남도를 비롯한

어 나라의 방방곡곡에 이어진 경에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에는 나라의 전면적, 전반적발전을 위한 원대한 구상과 크나큰 심혈이 깃들여 있다.

일곱해전 6월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평안북도 창성군을 현지지도하시었다. 창성식료공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현대화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었다.

그러시고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설비들의 현대화를 잘하며 현대화를 한 다음에는 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시었다. 그러시면서 지방공업공장들의 설비들을 현대화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원료를 확보하는 문제도 설비들의 현대화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었다.

그리고 지방공업공장들의 원료 문제는 철저히 지방원료에 의거하여 푸는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시, 군들에서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온 나라를 발전시키자면 군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었다.

나라의 200분의 1을 이루고있는 군은 지방경제발전의 기반단위이고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을 련결시켜주는 지역적거점으로서 군이 발전하면 도가 발전하고 따라서 온 나라가 발전하게 된다.

오래전부터 공화국에서는 군들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산을 깬 곳에서는 산을 리용하고 바다를 깬 곳에서는 바다를 리용하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기때문에 자력갱생, 자급자족할수 있

는 토대와 잠재력이 충분하다. 두해전 6월 서북단에 위치하고있는 평안북도 신도군을 현지지도하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특지와 떨어진 군에서 농사를 잘하고 축산, 수산기지를 활성화하여 군살림살이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급자족할수 있는 생활민천을 갖춘 군으로 만들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시었다.

그리고 군인민병원을 도시의 큰 병원 못지 않게 현대적으로 잘 꾸리도록 할데 대한 문제, 소학교, 중학교들을 잘 지어 교육환경과 조건을 일신하여 교사들이 도시부럽지 않은 문명한 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할데 대한 문제 등 군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섬지역 주민들이 물에 사는 사람들 못지 않게 행복한 생활을 향유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낚은날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것이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강군건설구상에는 도와 시, 군들을 발전되고 문명한 지방들로 발전시켜 나라의 전면적부흥을 안아오시려는 숭고한 애국애민의 뜻이 어려여 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나라 어느 산골마을에 가보아도 풍요한 가을이 마련되고 어느 공장에 가보아도 증산의 동음이 그 칠줄 모르며 그 어디에 가보나 인민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던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강국이라고 하시었다.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온 나라의 모든 지방들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 있다.

공화국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은 끈질기고 집요하다.

그러나 그 어떤 제재봉쇄압살책동도 자력갱생, 자급자족하며 발전하는 공화국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두해전 7월 공화국에서는 군용비행장자리에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한 대규모남새온실농장이 건설되는 놀라운 전변이 일어났다.

함경북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서 어량천5호발전소를 돌아보시던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문득 경성군에 있는 비행장에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비행장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한 일군에게 거기에 남새온실농장을 하나 건설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으시었다.

일군은 어리둥절하여 말문이 막히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이미 있던 비행장을 내고 그 자리에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된 대규모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함경북도 인민들이 좋아하지 않겠는가고 하시었다.

사실 함경북도는 북부해양성기후인것으로 하여 다른 지대보다 남새농사가 잘되지 않았다. 도의 전반사업을 책임진 그 일군도 청진시를 비롯한 도안의 인민들에게 사할 신선한 남새를 풍족하게 먹이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의 걱정거리로 속에 묵적이 매달려있었다. 하지만 그 일이 아무리 중하다한들 군용비행장에 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할수 있으리라고 생각지 못했었다.

그로부터 며칠후 비행장을 찾으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대규모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하기에 정말 명당자리이라고, 비행장이 넓고 땅도 비옥하다고, 이런 광활한 옥토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다. 그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

리시면서 어떻게 하면 함경북도 인민들에게 사할 푸르싱싱한 갖가지 남새를 보장해주시는가 하는데 대하여 많이 생각해보다가 여기 비행장을 내고 현대적인 대규모남새온실농장을 꾸릴 결심을 하였다고 하시었다.

계속하시어 일군들에게 이만한 면적에 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하면 함경북도인민들의 남새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수 있을것이라고, 현대적인 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하는 것은 내가 우리 인민을 위하여 제일 하고싶었던 일이라고, 함경북도인민들의 남새 문제가 풀리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이렇게 인민을 위한 고된 보람있는 일을 찾아할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며 환히 웃으시었다.

인민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으시기에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생활향상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 누구도 상상 못할 대응단을 내리시는 것이다.

승고한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지는 공화국에서 이런 사연깊은 이야기는 인민들이 리용하는 미림승마구락부에도 깃들여 있다.

원래 이곳은 군인들이 군마훈련장으로 오래동안 리용하여왔다. 그런데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군마훈련장을 인민을 위해 통째로 내주도록 조치를 취해주신 것이었다. 하여 승마애호가들과 각계층 군로자들이 즐겨 찾는 미림승마구락부가 태어나게 되었다.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의 길을 걸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사람물을 감동시키는 일들이 레사로운 일처럼 펼쳐지고 있다.

본사기자 주일봉



대규모관개체계인 황해남도물길건설이 훌륭히 계속되었다.

인민사랑이 낳은 시래어

몇해전 어느날 고산파수농장(당시)을 찾으신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고산파수농장의 사과바다, 청춘과원을 유서깊은 철령이 감싸고있으니 정말 멋있다고 하시면서 문필가들이 《철령아래 사과바다》와 같은 제목으로 좋은 글을 써내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었다.

1년후 또다시 이곳을 찾으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눈부리 아득한 농장의 전경을 부감하시면서 철령아래 사회주의선경, 인민의 리상향이 활짝 꽃피었다고, 아마 시인들이 이곳에서 시상이 절로 떠올라있으리라고 하시었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가요 《철령아래 사과바다》가 창작되어 인민들속에 널리 불리워지게 되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주체104(2015)년 11월 어느날 물고기잡이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한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어제날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게 전변된 수산사업소를 돌아보시며 황금해력사창조의 교향, 《단풍》호 고기배들의 고향답게 훌륭히 전변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었다.

사업소내에는 물고기비린내,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차고넘치는 희한한 풍경이 펼쳐졌다.

이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당정책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한몫이 그대로 추진자가 되고 그물이 되어 당정책을 걸사관철하고있는 어로전사들이 있기에 이채여경이라 하시었다.

주체105(2016)년 6월 어느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현대적으로 개건된 평양곡산공장을 찾으시었다.

이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강병이로 만든 당은 주체당이라고 하시며 평양곡산공장에서 주체당생산공정을 완성한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다.

돌이켜보면 어버이수령님께서 당과류생산에서 결정적문제라고 할수 있는 당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년 전에 벌써 우리 나라에 흔한 강병이를 가지고 당을 생산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인민들과 어린이들에게 당과류를 넉넉히 먹이시려고 마음씨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념원을 기어 이 풀어드리시려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강병이가공공정의 현대화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이 어떤 우당을 자체의 원료로, 자기식의 가공방법으로 뽑은 당이라고 하여 주체당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빛내어주시었다.

본사기자

행복의 금방석에 앉혀주시려

훌륭한 사람을 가리켜 《금방석에 앉혀도 아깝지 않을 사람》이라고 말한다. 금방석. 공화국에서는 그 금방석에 앉아 행복을 누려가는 주인이 다름아닌 인민이다.

언제인가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일군들과 함께 인민생활을 최단기간내에 향상시키기 위한 문제에 대하여 토의하시다가 문득 금방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은 고난의 행군을 하고 인민들은 락원의 행군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일군들이 고생을 하여서라도 인민들을 금방석에 앉혀야 한다고 하시었다.

일군들이 고생을 하여서라도 인민들을 금방석에 앉혀야 한다고 하시었다.

어민의 세계를 보여주는 금언이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을 행복의 금방석, 문명의 금방석에 앉혀주시기 위하여 끝없이 마음쓰신다.

지금으로부터 2년전 8월 레년에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던 어느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의 시운전을 지도하시었다.

궤도전차의 시운전에 이어 무궤도전차의 좌석에 자리를 잡으신 그이께서는 내부환경과 의장품의 질과 문화성이 높아졌는가, 운행시 소음과 진동이 적어졌는가, 모든 기술적특성지표가 정상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었다.

새형의 무궤도전차의 질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시며 그이께서는 세손으로 출

통한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만들어 출퇴근하는 수도시민들을 금방석에 앉히고 사회주의웃음소리를 싣고 달리게 하는 일이 얼마나 보람있는 일인가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좋아할 모습을 그려보시며 환히 웃으시었다.

통라인민유원지와 문수물놀이장, 미래과학자거리와 려명거리, 양덕은천문화휴양지를 비롯하여 인민의 웃음소리 높이 울리는 창조물들은 경에하는 원수님의 헌신에 의하여 마련된 행복의 금방석, 문명의 금방석들이다.

인민을 위한 건설은 하고 또 하여도 더 하고있고 인민들에게 이 세상 복이만 복은 다 안겨주고있으신것이 그이의 마음속에 간직된 소원이다.

언제인가 완공된 연풍과

학자휴양소를 돌아보시던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포도원 휴식처에 들리시었다. 휴식처의 의자들을 둘러보시던 그이께서는 보기에 다른 의자들보다 품위가 있어 보이고 우아하게 만든 색다른 방식까지 놓여있는 한 의자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시었다. 한 일군이 그이께 여기서 좀 쉬고 가실것을 아뢰었다. 그이께서는 휴식처의 의자들을 다시 일별하시고 이 건 옥좌인가 아니면 편좌인가고 물으시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이런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단호히 말씀하시었다.

정녕 인민은 행복의 금방석에 앉혀주시고 자신께서는 쉬엄있는 애민헌신의 길만을 걸고 또 걸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이시다.

본사기자 고성호

매혹과 품모

한없이 숭고한 의리를 지니신분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고결한 의리심을 지니신 위대한분입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을 충정대해 모시며 절세위인들의 유운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 인민을 위한 창조와 전변의 역사를 펼쳐가고계신다.

또한 그이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성실히 일하고 공을 세운 혁명선배들을 존대하고 내세워주시며 그들의 건강과 생활을 세심히 보살피고 계신다.

언제인가 어느 한 행사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주석단에는 오래동안 중요직책에서 사업해온 나이많은 일군들도 서있었다. 행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주석단에 서있는 그들을 눈여겨보시던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문득 한 일군에게 의자를 가져다주어 그들이 앉아서 행사에 참가하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시었다.

일군은 순간 주춤거리지 않을수 없었다. 그의 심정을 헤아려보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그들이 설사 의자를 가져다 주어도 앉지 않겠다고 할수 있는데 그래도 의자를 가져다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은 지난 기간 아버지이수령님과 장군님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일군들이 우리 인민들이 다 잘 알고있는 일군들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혁명선배를 존대하고 잘 돌봐주시는것이 우리들이 지켜야 할 숭고한 도덕의리라고, 그들이 몹시 힘들어하는데 빨리 의자를 가져다주어야 하겠다고 다시금 이르시었다.

이렇게 되어 지난 시기의 행사관례에는 없었던 가슴 뜨거운 화폭이 펼쳐지게 되었다.

전쟁로병들에 대한 그이의 사랑도 뜨거운것이다. 충훈성 조국수호의 성전에서 한목숨 아낌없이 바쳐 싸운 전쟁로병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해마다 그들을 수도 평양에 불러 전송할을 크게 의논할을 전전화하도록 해주시고 몸소

대회에 참석하시어 전쟁로병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가득 담긴 감동깊은 연설도 하시었다.

한없이 숭고한 의리를 지니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인민군필사들의 묘주는 우리 당이라고 하시며 평양시와 각 도들에서 련사들의 묘를 잘 꾸리도록 해주시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의 《승리》상에 《위대한 연대에 경의를 드린다》라는 세기를 이어 길이 빛날 불멸의 친필도 새겨주시었다.

이런 뜨거운 의리심에 떠받들려 이 땅에서 전쟁의 포화가 멎은지 70년이 가까이 오고있지만 조국의 총돈을 지켜싸울 수많은 유명무명의 전사들이 전승의 빛나고 살점이 멀어져나가는 아픔을 느끼지 않았다면 생각할수 없는 조치들이었다. 그 격정을 피력하시었다.

이처럼 한없이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넓고 깊은 사랑의 품에 온 나라 인민이 안기여 살고있다.

김춘원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장본인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노린 군사적모의와 대결태도를 계속 벌리고 있어 내외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당국은 미국, 일본과 화상회의방식으로 제12차 《한미일안보회의》라는것을 열고 그 누구의 《핵, 미사일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지역내 안정유지방안》과 《안보협력중장기방안》 등을 논의하는 추대를 부리었다.

우리 공화국을 모해압살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온 겨레와 진보적인류의 지향과 요구에 정

면도전하는 또 하나의 불순한 모의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 민족의 존망과 관련된 사활적인 문제이다. 하기에 공화국은 조선반도에서 철제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으며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도 쌍방이 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나가는 상대방을 겨냥한 무력증강을 하지 않음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남조선당국은 앞에서는 《평화》와 《대

화》에 대해 골짜기 외우면서 돌아앉아서는 외세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에 적극 편승하여 전쟁연습과 첨단 무기개발과 무력증강에 계속 매달리면서 동족대결야망을 실현해보려고 펴고 있다.

지난 6일 조선서해 최대 열점수역의 공중과 해상에서 공군 및 해상합동군사연습을 미친듯이 벌여놓은 남조선당국이 오는 8월 대규모인 《림팩》 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기로 결정한것은 그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 있다.

남조선당국이 벌리는 외세

와의 군사적모의와 북침전쟁 연습강행, 무력증강책동이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고조시키고 조선반도의 정세 악화와 전쟁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있다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현실은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는 장본인은 누구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동족을 해치기 위해 외세와의 위험한 군사적모의와 공중에 광분하고있는 남조선당국의 망종은 그들 스스로의 과일을 부르는 어리석은 것이다.

려정삼

어 색 한 《중도실용》타령

대해 이례적으로 당지도부를 대표하여 공식 《사과》하는 놀음을 벌였는가 하면 이어 보수야당이 광주로 총출동하여 《모지를 참배한다.》, 《사과한다.》 하면서 분주하게 돌아왔다고 한다.

지어는 《보수재건》을 위해 사이비진보화자를 청해다 조언을 듣는 해피마추한 추태도 부리었다.

한편 《국민통합연대》를 비롯한 보수단체들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정치적으로 중도실용정당으로 환골탈태할것을 권고한다.》고 하면서 《중도실용》정당으로 전환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것을 두고 남조선언론들은 《메리너 우는 시늬인가.》라고 하는가.》라며 야유조

소하고있다.

《미래통합당》이 《능력 있고 품격있는 보수》, 《국민을 위한 중도실용보수》로 변신하겠다고 떠들어대고있는것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막다른 정치적위기에 빠진자들이 《탈바꿈》 놀음으로 살길을 열어보려는 한갓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까마귀 분칠한다고 백로 될수 없다.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사대와 파썸통치, 반민민적악정, 동족대결을 베풀기까지 체질화하고있다. 그것을 떠나 순간도 생존할수 없는것이 바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다. 자기의 고유한 속성을 버린다면 그것은 벌써 보수정당으로서

의 《미래통합당》이 아닌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자기의 속성을 개변하겠다고 하는것은 승냥이가 풀을 먹겠다고 하는것으로서 도저히 실현가망이 없는것이다.

지난 시기에도 《미래통합당》의 조상들은 《중도실용정치》와 《천서민정책》을 떠들며 민심을 회유기만하여 권력을 잡고있었다는 온갖 역적행위를 일삼아왔다. 독사의 앞에서 깨어난 새끼독사도 결국 독사인것이 독사인듯이 조상들의 더러운 피줄을 그대로 이어받은 《미래통합당》이 아무리 《중도보수》로 포장해도 그 추악한 정체는 절대로 가리울수 없는 것이다.

체질변화가 예상조차 불가능한 보수세력들에게 남은 길이 있다면 카멜레온처럼 변색하는것이 아니라 완전히 멸종되어 남조선정치무대에서 사라지는것뿐인 것이다.

본사기자 김용철

《최인》도 만들어내는 파썸검찰

최근 남조선에서 검찰이 이전 《국무총리》였던 한명숙을 매장시키려고 음모를 꾸민 사실이 폭로되어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남조선의 언론들인 《MBC》와 《뉴스라파》가 사담한 《한신건영》 대표의 비방문을 공개한것으로 하여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기업가는 비방문에서 2007년 《대통령》 선거때 자기 80만US\$의 불법정치자금을 한명숙에게 준것이 아니라 당시 《한나라당》(《미래통합당》의 전신)소속 친박근혜파의원에게 넘겨주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이 이를 아예 알아본게었다고 폭로하였다.

또한 검찰이 한명숙의 유죄판 밝혀지면 빠른 시일안에 출소할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갖은 회유와 협박을 가하여 거짓진술을 받아냈으며 한명숙을 법원에 기소한 이후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증인인 자기에게 매주 질의

응답편수를 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개가 되었다고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비방문에 적어놓았다.

이 끔찍한 범죄사실이 밝혀지자 남조선 각계에서는 《정치검찰의 최악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검찰이 독재통치를 뒤받침하고 민주개혁세력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선것으로 하여 파썸독재권력의 돌리리,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고 인민들로부터 증오와 규탄의 대상으로 되어 온것은 잘 알려져있다.

이번에 드러난 이전 《국무총리》를 매장하기 위한 검찰의 비열한 음모책동은 파썸독재의 파수꾼, 보수세당의 시녀가 되어 민주개혁인사들을 모해하고 탄압해온 남조선검찰의 잔악무도한 범죄행위들 가운데서 하나의 사실에 불과하다.

알려진것처럼 한명숙은

퇴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당시 검찰은 한명숙이 《국무총리》 시절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만US\$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에게 지역형과 벌금을 구형하였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한것으로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렇게 죄자 검찰은 《항소》를 떠들며 양탈을 부리던 나머지 다음해에는 한명숙이 건설업체인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것이 포착》되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립장을 밝혔다.

하여 한명숙이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지 몇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쓰고 기소당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당시는 남조선에서 지방자치제선거와 서울시장선거를 앞둔 때였으며 한명숙은 야당을 대표하는 유력

한 서울시장후보로 공인되어 있었다.

민심을 짓밟은 반역정책으로 하여 지방자치제선거와 서울시장선거에서 야당세력에게 패할수 있다는 우려로부터 보수세력들이 음모적방법으로 기본적으로 될수 있는 주요 야당인사들을 몰아내려는 기본대상의 하나가 바로 서울시장후보로 나선 한명숙이었다는것이 당시 각계의 평이다.

결국 검찰수사대상으로 된 한명숙은 서울시장선거에서 낙선되었고 이후에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뒤집어쓰고 감옥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고 한다.

이번 사실을 통해 보수세당의 반역정책실현의 도구로 전락되어 반대파제거, 정적제거를 위해서는 그 어떤 비열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정치검찰의 횡포무도한 몰골이 만천하에 다시금 드러나게 되었다.

보수세당이 저지르는 천

인공노할 특대형범죄사건들에 대해서는 예외 못 본척 하고 민주개혁세력들에 대해서는 없는 사실도 억지로 꾸며내면서 무차별적인 모욕의 칼을 들이댄자들이 바로 남조선의 검찰장대들이다.

역사와 현실은 남조선검찰이 야말로 보수세력들과 한몸통, 한죽속이 되어 정파의 민주, 인권을 교살하는 추악하고 비열한 적폐세력이라는것을 똑똑히 실증해주고 있다.

남조선사회의 악성종양인 보수세력들과 그와 한꼴인 검찰장대들을 매장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비극적사건이 또다시 재연되게 될것은 자명하다.

남조선 각계가 이번 모략사건을 《검찰의 추악한 범죄죄주와 생리를 확인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규탄하면서 검찰적폐청산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본사기자 주광일



정의당은 어디로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정의당의 지지율이 더욱 급격히 떨어지고있다고 한다.

《리얼미터》를 비롯한 남조선 여론조사기관들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년초까지만 해도 9%정도에 달하였던 정의당의 지지율은 현재 6%로 떨어졌으며 핵심지지층이었던 20, 30대에서도 5%의 지지율에 머무르고있는 정도라고 한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정의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것은 진보세력과의 선거연대를 거부하고 독자노선을 고집한데 있다고 하면서 민심의 요구를 외면하고 분열과 반목을 추구한다면 정의당의 존재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남조선신문 《한국경제》는 어느 한 인터넷포털사이트에 《정의당 망하는건 순순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고 하면서 이렇게 전했다.

《해당 인터넷사이트의 글에는 《얼마전까지 정진을 못 차리고 또다시 민심을 기만하기 위해 당명개칭을 운운하며 《변화》에 대해 읊조리고있으니 변변치 못한 양봉밀구멍같은 비열하고 저열한 족속들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하지만 이불것을 보고 발을 뒤흔다고 괜한 헛수고이다.

《이젠 그 놀음에 신물이 난다. 기관바꾸기놀이 그만하고 짝 없어져라.》, 이것이 지금 남녘민심의 목소리이다.

김영범

결과 당론이 없이 남의 품에 뜻을 다는 식으로 정치를 하게때문이라고도 평하고 있다.

남조선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는 《다수의 언론이 정의당 위기관인으로 선명성악화, 대안정당으로서의 준비부족, 인물발굴미흡 등을 지목했다.》고 평하였다.

인천대학교의 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의당이 《공정가치를 중시하는 청년들의 지지를 받기엔 부적합해 보인다.》며 《정의당이 바뀌지 않으면 4년 내내 어려울것》이라고 하였으며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어느 한 토론회에서 《생기발랄한 진보정당에서 낡고 최후한 정당으로 전락했다. 새로운 의제와 담론으로 기성정치를 깨우는 역할을 포기하고 기득권정당으로부터 지대할당 받으려는 마음정당이 되었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남조선언론들과 정치전문가들은 진보정당은 자기의 고유한 본래와 성격을 살려야 한다는것을 부각시킬수 있다고 하면서 정의당이 불분명한 《개량화》를 계속 추구하거나 《선명한 진보적가치의 정치를 복원하지 못한다면 지지율하락을 막을수 없다.》고 분석하고있다.

본사기자 배영일

정의당은 어디로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정의당의 지지율이 더욱 급격히 떨어지고있다고 한다.

《리얼미터》를 비롯한 남조선 여론조사기관들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년초까지만 해도 9%정도에 달하였던 정의당의 지지율은 현재 6%로 떨어졌으며 핵심지지층이었던 20, 30대에서도 5%의 지지율에 머무르고있는 정도라고 한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정의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것은 진보세력과의 선거연대를 거부하고 독자노선을 고집한데 있다고 하면서 민심의 요구를 외면하고 분열과 반목을 추구한다면 정의당의 존재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남조선신문 《한국경제》는 어느 한 인터넷포털사이트에 《정의당 망하는건 순순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고 하면서 이렇게 전했다.

《해당 인터넷사이트의 글에는 《얼마전까지 정진을 못 차리고 또다시 민심을 기만하기 위해 당명개칭을 운운하며 《변화》에 대해 읊조리고있으니 변변치 못한 양봉밀구멍같은 비열하고 저열한 족속들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하지만 이불것을 보고 발을 뒤흔다고 괜한 헛수고이다.

《이젠 그 놀음에 신물이 난다. 기관바꾸기놀이 그만하고 짝 없어져라.》, 이것이 지금 남녘민심의 목소리이다.

김영범

성노예범죄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가 26일 《위안부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일본군국주의의 세력이 세계도처에서 녀성들을 랑치하여 성노예로 삼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얼마전 일본의 무성이 당국의 외교정책을 세계에 알리려는 세부본인 《2020년 외교청서》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일본의 무성은 독도가 제땅이라고 또다시 칠면파해 주장하였으며 일본군국주의에문제를 대해서는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것이 사실에 어긋나다고 생억지를 부리었다.

과거죄악을 부정하면서 명도강탈야욕을 로골적으로 드러낸 일본의 《2020년 외교청서》 발간놀음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용납 못할 유린행위이고 저들의 반인륜적죄악에 대한 로골적인 미화분식으로서 낯뜨게 하고 하는 족제비도 울고갈 파렴치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일본이 역사적으로 보나 국제법적으로 보나 우리 민족의 고유한 령토인 독도를 제것이라고 생떼쓰는 여기에는 독도문제를 여론화, 국제화하며 이를 구실로 제침야망을 거어이 이루어보려는 더러운 흥심이 깔려있다.

더우기 지난날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강제로 끌어

그러나 아직도 일본이 이에 대해 인정도 사죄와 배상도 하지 않고있다고 사실은 지적하였다.

사설은 최근 굴욕적인 일본과의 성노예문제 《합의》를 강행한 적폐세력들과 일본우익세력이 성노예문제해

결을 가로막으려 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을 피해자나 국민모두가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하면서 성노예범죄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러네트에 공개하여 우리 겨레의 분노를 더욱 자아내었다. 남조선 각계가 《고노(일본분위상)가 공개한 조선반도지도는 전쟁을 염두에 둔 공격대상지리과악용지도이다.》, 《일본이 조선반도를 다시 침략하겠다는것이다.》며 격분을 표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피로 얼룩진 전범기를 방위수장의 사무실에 조선지도와 함께 빼앗아 걸어놓고 제침의 광기를 드러내고있는 일본족속들에게는 추호의 타협도, 한조각의 관용도 있을수 없다.

력사앞에 지닌 저들의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의무는 회피한채 군국주의부활과 제침책동에만 혈안이 되어 날뛰는 섬나라오랑캐들의 무분별한 망동은 구천에 사무친 원한의 피값을 천백배로 받아내려는 우리 민족의 각오와 의지만 더욱 굳세게 해돋는다.

김광률

《미래통합당》내에서 《당명변경》 가능성이 거론되고있다고 한다.

《미래통합당》이란 명칭은 사실상 21대 《국회》의원선거용으로 지은것인데 사람들의 이목을 끌수 있게 다시 바꾸어야 한다는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이를 두고 함간에서는 《송장먹은 까마귀소리》, 《갸레기나 바꾼다고 속까지 달라지겠는가.》 하는 야유와 조소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그뿐만도 하다. 패당이 막다른 골목에 빠졌 때마다 낯날 벌여놓는것이 《당명개칭》 놀음이다.

천하악녀 박근혜역도가 저지른 만고죄악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자 《저질한 반성》, 《사죄》를 운운하고 《보수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해신과정

의 몸부림》이라고 너두리질하며 《새누리당》을 《자유한국당》으로 개칭한것이 바로 몇해전의 일이다.

하지만 올해초에는 그것마저도 《미래통합당》으로 개칭을 바꾸어달라 《이제 통합의 큰 배를 타고 희망의 항해에 나선다.》고 요란히 광고하였다.

헛수고

허나 인물도 그 인물, 집도 그 집인데 기관이 바뀌어달라고 까마귀가 백로가 될수 없는노릇이었다.

그도 그럴것이 새로운 기관을 달았지만 보수세력들이 버려놓은것이란 《국회》를 식물 《국회》, 동물 《국회》로 만들고 거러에 뒤집어놓은 꼴과 장외집회와 같은 낯뜨거운 만장판을 벌려놓는가 하면 국민을 게

가 청춘을 무참히 유린말살한 야수들이 《성노예》라는 표현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 소너상을 쫓겨하라고 호통친것은 일본의 파렴치성을 잘 말해주고있다.

왜나라족속들이야말로 인종도 범도도 모르고 털끝만한 죄의식도 느낄수 모르는 회색의 날강두무리이며 용서 못할 천년숙적이다.

우리 민족에게 천추만대를 두고 씻지 못할 반인륜적범죄를 강행한 일본이 날로 오만방자하게 늘어대는것은 남조선보수세력들의 추악한 친일매국적망동과 남조선당국의 비굴한 태도와도 관련되어 있다.

문제는 일본의 제침야망이 견줄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데 있다.

일본의무성이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명기한 《2020년 외교청서》를 발간한 날 방위상이라는자는 조선반도지도와 피로 얼룩진 전범기 《육일기》가 빼앗아 걸려있는 자기의 사무실을 인

터네트에 공개하여 우리 겨레의 분노를 더욱 자아내었다. 남조선 각계가 《고노(일본분위상)가 공개한 조선반도지도는 전쟁을 염두에 둔 공격대상지리과악용지도이다.》, 《일본이 조선반도를 다시 침략하겠다는것이다.》며 격분을 표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피로 얼룩진 전범기를 방위수장의 사무실에 조선지도와 함께 빼앗아 걸어놓고 제침의 광기를 드러내고있는 일본족속들에게는 추호의 타협도, 한조각의 관용도 있을수 없다.

력사앞에 지닌 저들의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의무는 회피한채 군국주의부활과 제침책동에만 혈안이 되어 날뛰는 섬나라오랑캐들의 무분별한 망동은 구천에 사무친 원한의 피값을 천백배로 받아내려는 우리 민족의 각오와 의지만 더욱 굳세게 해돋는다.

김광률

과거 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식민지화한 일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격렬한 가두시위를 벌였다.

평양인민들의 반일시위투쟁을 발단으로 하여 불기는 삼시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로 번져갔으며 민주와 상해, 연해주, 하와이 등 해외에 있는 동포사회에까지 파급되어 전민족적인 항쟁으로 벌어졌다.

3.1인민봉기가 일어난 때로부터 석달동안만해도 200여만명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항쟁에 참가하였으며 그해 12월까지의 전국각지에서 3 200여회의 시위와 폭동이 일어났다.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파괴 폭압통치하에서 망국노의 운명을 써지리게 체험한 우리

《조선독립 만세!》, 《일 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격렬한 가두시위를 벌였다.

평양인민들의 반일시위투쟁을 발단으로 하여 불기는 삼시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로 번져갔으며 민주와 상해, 연해주, 하와이 등 해외에 있는 동포사회에까지 파급되어 전민족적인 항쟁으로 벌어졌다.

3.1인민봉기가 일어난 때로부터 석달동안만해도 200여만명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항쟁에 참가하였으며 그해 12월까지의 전국각지에서 3 200여회의 시위와 폭동이 일어났다.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파괴 폭압통치하에서 망국노의 운명을 써지리게 체험한 우리

《조선독립 만세!》, 《일 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격렬한 가두시위를 벌였다.

평양인민들의 반일시위투쟁을 발단으로 하여 불기는 삼시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로 번져갔으며 민주와 상해, 연해주, 하와이 등 해외에 있는 동포사회에까지 파급되어 전민족적인 항쟁으로 벌어졌다.

3.1인민봉기가 일어난 때로부터 석달동안만해도 200여만명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항쟁에 참가하였으며 그해 12월까지의 전국각지에서 3 200여회의 시위와 폭동이 일어났다.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파괴 폭압통치하에서 망국노의 운명을 써지리게 체험한 우리

민족은 직업과 신앙, 남녀로소의 구별없이 도처에서 봉기에 참가하여 《조선독립 만세!》를 외치며 애국의 더운 피를 향성의 마당에 아낌없이 뿌렸다.

우리 민족은 3.1인민봉기를 통하여 조선사람은 남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는 자

수비대병력까지 봉기탄압에 내몰았다.

그것도 부족하여 일제는 조선주둔 일본군과 제함군인, 일본본토병력을 동원하였으며 지어 조정에 있는 일본인거류민들에게까지 살인흉기를 휘두르면서 봉기를 횡포하게 탄압하였다.

4만 6 900여명의 애국자와 인민들이 검거투옥되고 1만 5 900여명의 부상자가 났으며 7 500여명이 무참히 학살되었다.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일제와 같이 가장 잔인무도한 방법으로 적수공편되는 것들마다에서 무차별적인 총칼탄압을 감행하였으며 칼과 도끼, 삽과 참깨창 등 살인흉기를 마구 휘두르면서 봉기참가자들의 목을 자르고 나무에 매달았으며 불에 태워죽였다.

이에 대해 일본의 어용학자까지도 《일본헌병은 차마 눈뜨고 볼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탄압에 광분하였다. 일

본헌병의 포악함은 형언할수 없는가 그들은 늙은이와 부녀자, 어린이들까지 총검으로 찔러죽이고 목을 달아매어 처형하였다.》고 벌어진 사태에 경악을 표시하였다.

일제살인귀들의 야수적인 살륙만행으로 1919년 3월부터 5월말까지의 기간에만도

4만 6 900여명의 애국자와 인민들이 검거투옥되고 1만 5 900여명의 부상자가 났으며 7 500여명이 무참히 학살되었다.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일제와 같이 가장 잔인무도한 방법으로 적수공편되는 것들마다에서 무차별적인 총칼탄압을 감행하였으며 칼과 도끼, 삽과 참깨창 등 살인흉기를 마구 휘두르면서 봉기참가자들의 목을 자르고 나무에 매달았으며 불에 태워죽였다.

이에 대해 일본의 어용학자까지도 《일본헌병은 차마 눈뜨고 볼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탄압에 광분하였다. 일

김철성



조선지도와 함께 전범기인 《육일기》를 방에 빼앗아 걸어놓고있는 일본방위상

어머니 조국에 운명의 피줄을 잇고

재일동포와 조국

5월 25일은 공화국의 존엄 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재일본 조선인총련합회(총련)가 결성된지 65년이 되는 날이다. 뜻깊은 이날에 즈음하여 《통일신보》의 기자, 편집원들은 철세위인들의 열화 같은 믿음과 숭고한 동포애, 재일동포들의 고결한 애국정신으로 수놓아진 총련의 자랑스러운 로정을 돌아보며 어머니 조국과 한피줄을 잇고 사는 친형제, 한집안식솔들인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뜨거우며 동포애적인사를 보낸다.

에로부터 해외동포들은 민족이라는 대하에서 뛰어나온 물방울에 비유되었고 그들의 역사는 레이없이 수난의 역사로 불리워왔다. 우리 민족의 불행에 찬 해외류방의 역사는 일제의 조선침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불우한 행렬가운데서 최악의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다름아닌 재일동포들이었다.

1910년 《한일합병조약》이 날조되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사는 조선사람들의 수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데 1945년 일제 패망당

시에는 그 수가 무려 240만 명에 달하였다. 그 절대다수가 일제의 총칼에 떠밀리워 강제로 바다 건너 일본에 끌려간 사람들이었다. 당시 《침묵 한개에 조선사람 한명》이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죽음의 유행이 배회하는 살인고역장에서 그들의 생명은 파리로죽이나 같았다.

얼음판에 떨어진 씨앗과도 같이 차디찬 이역의 대지에 뿌려졌던 재일동포들, 그들이야말로 우리 민족사의 가장 비참한 수난자들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아주시고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해주셨으로써 재일동포들은 크나큰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살며 일하게 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재일동포들의 자주적인 삶과 운명개척을 위해 재일조선인운동을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었다.

한때 차디찬 이국에서 날 바다에 표류하는 쪽배처럼 방황하던 재일조선인운동이

바로 이러한 때에 해외교포운동은 비록 이국땅에서 진행되지만 어디까지나 주체적립장에서 자기 나라 혁명에 참담하게 이바지하는 민족적애국운동으로 되어야 한다는 그이의 탁월한 로선전환 방침이 제시되게 되었다. 이것은 동포들의 머리에 드리웠던 절망의 짙은 구름장을 뚫고 비쳐든 은혜로운 소생의 빛이었다.

1955년 5월 25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의 결성으로 재일조선인운동은 마침내 애국의 뜻을 달게 되었다. 어머니조국과 운명의 피줄을 맺은 이력사의 날이 있어 애국애족의 생각과 애국충정의 모범,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로 자랑 높은 총리의 어제와 오늘, 매일이 좋기차게 흐르게 되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는 드디어 해살도 한결 눈부시며 신록이 춤추는 5월 25일 봄처럼 출발을 했다. ...이것은 오로지 영명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모신 우리들이 능히 달성할 수 있는 자랑이며 또 하나의 승리이다. ...우리는 이날을 얼마

나 고대하고 주룩했는가! 또한 이력사적인 전환을 저애하려고 내외의 적들의 음모와 도발책동은 얼마나 혹심했던가! 제일 60만은 그를 물리치고 기어이 승리하고야 만 것이다.》

당시 《해방신문》에 대서 특필되었던 이 기사에는 공화국의 기치야말로 보람찬 애국투쟁의 길에 나서게 된 재일동포들의 격동과 환희가 그대로 어려있었다.

철세위인들의 현명한 영도 밑에 존엄높은 자주의 나라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위용떨치는 공화국은 재일동포들이 바람찬 새날이 있어 애국애족의 혼들림 없이 애국위업의 한걸음씩을 걸어가주시고 있는 한 역사의 길지대였다.

일찌기 총리의 강화발전과 재일동포들의 운명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로 재일조선인운동이 나아가길 길을 활히 밝혀주시었으며 재일동포들이 애국애족의 한걸음씩을 걸어가주시고 있는 한 역사의 길지대였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변화된 정세와 세대가 교체되는 환경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올려세울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는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었다.

재일동포들은 두터운 정을 안고 사는 핵유아라고 하며 주체의 애국유아라고 하면서 주체의 혁명적정신과 주권을 귀중히 여기고 백방으로 보호할것이며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존엄높은 삶과 밝은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할것이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 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없는 동포애, 민족애가 그대로 어려있었다.

철세위인들의 은혜로운 손길이 있어 총련은 사회주의조국과 운명을 같이하는 공화국의 참다운 해외공민단체로 강화발전되어왔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총련을 그 어떤 친치풍파에서도 끄떡없는 애국적적으로 철저히 다지였으며

적대세력들의 온갖 비난과 공격으로부터 공화국을 견결히 옹호하였다.

동해의 파도너머 들려오는 조국의 자랑찬 소식, 철세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주체의 한걸음에서 민족의 존엄을 떨쳐가는 어머니조국의 드높은 승결은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신념과 투쟁의 활력소가 되었다.

총련은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의 철저한 대변자, 견결한 옹호자, 친철한 봉사자로서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왔다. 특히 민족교육체계를 정연하게 세워놓고 애국위업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수많은 인재들을 훌륭히 키워냈으며 주체성과 민족성이 흘러넘치는 동포사회를 꾸려놓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자랑스럽게 꽃피워왔다. 지난날 이역방방에 온갖 수모를 받으며 무관리와 생활고에 시달려오던 재일동포들이 오늘 자주독립국가의 해외공민으로서 민족적자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땀땀이 살고있는것은 총련이 그들의 권리를 책임지고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온 결과이다.

오늘도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조국인민들과 고향을 함께 나누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불타는 애국지성을 바치고있다. 조직상적으로 굳게 단결되고 광범한 동포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았으며 애국의 계주봉을 변함없이 이어가오는 여기에 총련의 자랑스러운 참모습이 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열렬한 조국애, 민족애의 역사는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 찬 공화국의 어제와 오늘, 매일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조선대학교에는 대학에서부터 민족교육을 받는 편입생들이 더러 있다.

나는 3년간 그들의 조선 어수업을 맡았다. 그들의 머리속은 세하안 학습장과도 같아 서투른 조선어 글자를 학습장에 적어가는것과 동시에 머리속에도 《민족》을 새겨고있었다.

나의 목표는 첫 조국방문에서 그들이 조국인민들과 말을 주고받을수 있게 하는것이였다.

어느날 한 편입생이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왜 공화국을 조국으로 여겨야 합니까?》 사실 그것은 강요할수 없는것이였다.

나는 그에게 민족문화와 조국의 현실에 대해 알려주었고 동창생들도 그에게 많은 이야기기를 들려주었다. 《흥미없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오기 일쑤였다.

그러던 그가 드디어 조국을 방문하였다. 막상 조국에 와보니 그는 누구보다도 흥분되었다.

《많이 알고싶는데 말이 어렵습니다.》하고 조국의 소설을 내미는 바람에 자정이 넘을 때까지 그와 함께 번역도 하였다.

그의 학습장에는 강의며 참관, 토론의 내용이 빼곡이 적혀있었다.

그의 머리속에도 평소에 느끼지 못한 새로운 감정과 정보가 새겨져있는것이다. ... 하루하루 눈빛이 변하는 그를 볼 때마다 내 마음도 즐거워졌다.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날 환송연회에서 나는 뜻밖에도 그의 두부를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았다.

류달리 깊은 정을 나눈 조국의 우리 말 강사와 작별의 아쉬움을 금할수 없는 모양이였다.

조국선생님은 그를 두고 정말 장하다고, 우리 말을 알아야 조국과 민족을 알아가야 할수 있으니 앞으로도 잘 배워 민족을 사랑하고 지키는 한 성원이 되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 물어보았다. 《조국에서 뭘 느꼈어요?》

그는 말했다. 《여기가 바로 나의 조국이라는것입니다.》

기적적인 그 순간 나의 눈시울도 뜨거워졌다.

아무것도 몰랐던 그가 조선어를 배움으로 하여 직접 조국인민들과 정을 나누고 얻은 느낌, 그것은 금새매기과 같이 귀중한것이다. 그의 머리속에는 조국과

깊숙이 이어진 자국과 민족에 대한 소중한 생각과 아름다운 추억들이 새겨졌을것이다.

차디찬 이역방에서 어려움에 부딪칠 때마다 머리속의 《학습장》을 먼저 조국에서의 추억이 그의 앞길을 밝혀, 따뜻하게 비추게 될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고있다. 조선대학교 연구원 홍윤실 《조선신보》 2019년 12월 4일부터 제재

편입생의 《학습장》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안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니시도교조선제1초등급학교 소년단원들



민족교육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에 나선 재일동포들

지금으로부터 13년전인 2007년 2월 평양에서 진행된 2.16경축 국가미술전람회에서는 한 도자공예품이 미술가들과 애호가들의 관심을 모았다.

호로형 알록반죽자기꽃병이

었다. 근 천년만에 다시 나타난 알록반죽자기를 보며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역사의 이기속에 묻혀버려



유관준선생

고려의 귀중한 보물—알록반죽자기

유관준선생은 전쟁의 불길에 타버리던 1951년에 북변의 한 란방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전선원호사업을 하느라 늘 나가살다살이 하였고 만누이가 막내인 그를 등에 업고 달래곤 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그의 가족은 아버지를 따라 경성군으로 이사했다. 유관준선생은 어려서부터 그림그리기를 무척 좋아하였다.

학창시절 담임선생님은 그에게 전기간 학습의 벽보를 맡게 하였다. 언젠가는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눈길을 피하여 한 미술가의 생을 그린 소설책을 몰래 읽다가 꾸중을 받은적도 있었다.

며칠후 선생님은 그의 손목을 잡고 당시에는 꽤 소문이 나던 경성군문화회관의 미술소조로 갔다. 소조원은 15명정도였는데 그들중에는 유관준선생처럼 나이 어린 학생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민족문화유산인 알록반죽자기와 유관준일가

번 했던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되살려낸 주인공은 당시 합경북도미술창작사 도자공예창작실 실장 유관준선생이였다.

이때에 처음으로 현대알록반죽자기를 내놓은 유관준선생은 그후 알록반죽자기제조법을 과학화하는 사업을 계속 심화시켰다.

2018년 10월 알록반죽자기제조술은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키는데 대한 철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알록반죽자기제조에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친 유관준선생과 그 일가가 걸어온 애국의 길에 대하여 적어본다.

말~12세기초에 출현한 도자기입니다. 알록반죽자기는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전통 미술유산의 하나로서 그 당시는 물론 세계도자기공예사상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독특한 도자기이며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알록반죽자기기 세월의 흐름과 함께 묻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제작기술에 대한 초보적인 자료조차 없어 대를 이어 전

수십여년의 피라는 사색과 노력끝에

몇점의 유물사진자료, 알록반죽자기의 창작년대, 일 반적인 몇문장의 자료...

유관준선생이 연구의 길에 들어섰을 때 알록반죽자기와 관련한 내용은 이것이 전부였다. 자기와 관련한 옛 문헌들을 많이 연구하였지만 뚜렷한 성과는 아니였다.

유망과 현실의 차이를 실감하며 손뼉을 놓고있을 때 나라에서는 그를 평양미술대학으로 불러주었다. 어릴 때부터 씩씩도 로동현장과 실생활에서 연마되어온 그의 재능은 대학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한계던 더 발전하게 되었다.

대학을 졸업한 그는 고려 알록반죽자기의 제조비밀을 기어이 밝혀내리라는 각오를 다시금 굳게 다지였다.

1984년부터 유관준선생은 합경북도미술창작사 도자공예실(당시) 실장으로 사업하게 되었다. 날이 갈수록 실장사업도 하면서 연구도 하는것이 힘에 부쳤다.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때마다 유관준선생은 개인미술전람회의 나날을 돌이켜 보았다.

좋은 미술작품들을 인민들속에 널리 보여주기 위한 사업을 잘할데 대한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교시에 따라

해지지 못했고 얼마 안되는 알록반죽자기유물마저도 일체의 조선문화재파괴와 략탈책동을 하여 거의나 자취를 감추게 되었것입니다.》 민족의 넋과 슬기가 깃든 알록반죽자기기 력사기록으로만 남은채 근 천년의 세월이 흘렀던것이다.

잃어버린것은 청춘의 열정을 안고 막상 그 길에 뛰어들었지만 연구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유관준선생은 일반적으로 한가지 원료로 제조한 자기와는 달리 알록반죽자기는 성분이 서로 다른 2~3가지이상의 여러 원료를 가지고 독특한 성형방법으로 만들어졌었다.

그는 나약해지는 마음을 다잡고 사색과 연구를 거듭하였다. 고려시기 도자공들은 과연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성형방법으로 알록반죽자기를 만들어냈을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세가지 원료로 자기를 제조한 예는 없습니다. 모두 한가지 소재에다가 여러가지 유약으로 그 장식적효과를 나타내지만 알록반죽자기는 세가지의 원료를 가지고 독특한 장식적효과를 나타내고있습니다.》

그는 도자기고장으로 알려진 경성군의 산지들을 편답하면서 백색, 청색, 흑색 등의 색을 가진 고품토, 사질토를 비롯한 적합한 재료를 얻게 되었다.



새 작품창작에 전념하는 유관준선생의 가족과 선생이 받은 비물질문화유산등록증

은 전도양양한 도자공예가가 되었다. (그만은 조국의 품이 아니라면 평범한 란방의 아들이 오늘과 같이 온 나라가 다 아는 도자공예가가 될수 있었겠는가.) 그는 나약해지는 마음을 다잡고 사색과 연구를 거듭하였다.

그의 노력은 28년만에 드디어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되었다. 2007년 마침내 다른 고려자기와는 구별되는 뚜렷한 개성을 가진 알록반죽자기를 만들어냈다. 2.16경축 국가미술전람회에

도 각이한 원료들의 수색, 팽창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시험과정을 통해 자기제조에 가장 합리적인 배합비율을 찾아냈다.

수십여년동안 피라는 사색과 탐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그는 마침내 알록반죽자기의 재료와 그의 성형, 조성 등에 따르는 기술공정들을 확립하게 되었다.

유관준선생은 알록반죽자기의 독특한 무늬를 도출해내기 위해 섬세한 예술적기량과 정교한 세공술도 완성해나갔다.

그의 노력은 28년만에 드디어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되었다. 2007년 마침내 다른 고려자기와는 구별되는 뚜렷한 개성을 가진 알록반죽자기를 만들어냈다. 2.16경축 국가미술전람회에

현대알록반죽자기가 훌륭하게 완성된데는 유관준선생의 노력만이 깃들어있지 않다.

그의 안해와 두 아들, 며느리... 온 일가가 연구사였고 실험조수였고 성형공이였다. 안해인 김춘옥씨는 연구의 나날을 돌이켜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가족이 끝이 있는

길은 가고있는것인가 하는 회의감도 들었고, 또 어떤 때는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그만두고 가정생활에만 전념할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새롭게 개척해야 하는 길이 아닙니까?》

합경북도미술창작사 도자공예실에서 일하고있는 둘째 아들 유광은 아버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언제 한번 작 업부를 벗어본적이 없습니다. 낮에는 배낭을 메고 도자기원료와 유약재료를 찾아 산방을 오르내렸고 밤에는 소성로에서 도자기를 구웠습니다. 어릴적에는 항상 도자

기원료가 묻은 옷을 입고있는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철이 자람면서 아버지의 모습이 자랑스러웠고 나도 아버지, 어머니, 형님과 함께 이 길을 걸으리라 결심하고 알록반죽자기제조연구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알록반죽자기제조법을 완성한 지금도 유관준선생은 아들들과 함께 방방곡곡을 다니며 각지의 돌과 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한다. 그것은 나라의 그 어느곳에 있는 흙으로도 알록반죽자기를 비롯한 민족자기를 제조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유관준선생과 그 일가의 남다른 애국심과 창조와 정열의 산물인 현대알록반죽자기.

보면 볼수록 조형적형식이 기묘하고 이채로웠으며 하여 독특한 정서적미감을 안겨줄뿐 아니라 인민들에게 민족적공정과 자부심을 더욱 북돋아주었다.

학계에서도 현대알록반죽자기를 놓고 우리 나라 도자공예의 발전면모를 더욱 풍부히 하고 나아가서 인류도자공예사를 빛내는데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고 평하고있다.

어제날 묻혀버려던 알록반죽자기를 되살릴 결심을 품고 그 길에 나섰던 20대 청년 유관준선생, 이제 그의 나이도 어언 70을 가까이하고있다.

하지만 그는 오늘도 청춘의 열정과 기백으로 알록반죽자기제조법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나가고있다.

유관준일가가 걸고있는 애국의 길. 그 누가 시켜서, 그 누가 떠밀어 가는 길이 아니다. 민족의 넋과 문명이 어려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에 바친 유관준일가의 애국의 마음은 만사람을 감동시키고 있으며 현대알록반죽자기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것이다.

본시기자 김춘경

최근년간 공화국에서 버섯 재배를 공업화하여 사계절 많은 버섯을 수확하고 있다. 공화국을 버섯의 나라로 만든 실 구상을 펼치신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도처에 현대적인 버섯공장들이 훌륭히 일떠서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흐뭇할 버섯 풍경

버섯공장의 본보기, 표준 단위로 일떠선 평양버섯공장에 가면 하얗게 돌아나 척척 들어진 팔복만 한 흰곤봉버섯들을 볼수 있다.

공룡식버섯재배장과 실내 재배장을 배합하여 버섯을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고있는 공장의 재배실에서는 터질듯 살이 오른 흰곤봉버섯들이 짙은색이 가득가득 돌아나고있다.

평양버섯공장에서는 버섯 재배를 대대적으로 할수 있는 확고한 과학기술적태도를 마련하고 버섯생산을 끊임없이 늘리고있다.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공장을 로력절약형, 에너지절약형, 원가절약형, 부지절약형기업체로 꾸리고 통합생산체제조종관리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여 버섯재배의

정보화, 과학화수준을 훨씬 높였다. 공장에서는 농업성 중앙 버섯연구소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버섯재배, 려검정버섯을 비롯한 여러가지 버섯을 철따라 생산할수 있는 새로운 버섯재배공정을 확립하였다.

이 공정이 확립됨으로써 계절적영향에 구애됨이 없이 각이한 종류의 버섯을 종전보다 1.3배이상 생산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

사리원시에 위치한 정방산버섯공장에도 최첨단 버섯배, 버섯풍경이 펼쳐지고있다.

버섯들이 저저마다 키돋음을 하며 무리지어 돌아나고있는 버섯재배장의 광경은 볼수록 장관이다.

더 많은 버섯을 재배하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일념을 안고 과학기술의 열풍, 자력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 흐뭇한 버섯농년을 안아온 정방산버섯공장의 종업원들이다.

그런가 하면 동명군 보성협동농장에서 버섯생산을 잘하여 그 덕을 보고있다.

맛있고 영양가높은 갖가지 버섯들을 받아안고 기뻐할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는가다 자란 버섯들을 수확하는 재배공들의 얼굴에도 기쁨의 미소가 한껏 비껴있다.

본사기자 홍범식



온갖 꽃 만발하는 계절과 더불어 고상하고 생기발랄한 청년들의 모습은 거리를 더욱 활기있게 해주고있다. 우리 문화가 제일이고 우리 생활양식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적극 살려나가는 청년들의 정신세계가 사진속의 주인공들의 모습에 그대로 비껴있다. 본사기자



정방산 버섯 공장 에서

민족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연구성과

사회과학원에서

사회과학원에서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재보를 더욱 풍부히 하는데 이바지하는 연구성과들을 이룩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우리 나라 언어학, 민족학부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나갔다. 과학자들은 우리 나라 언어학, 민족학부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나갔다.

아름다운 말소리, 재인 문법 구조에 대하여 깊이있게 론정한 연구성과들은 평양문화어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문화적이며 건전한 언어생활기풍이 사회의 확고한 풍조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자식의 이름을 고상하면서 도 뜻이 깊게 지어부른 우리 민족의 오랜 생활관습과 우리 인민의 고유한 인사법인 조신절의 우월성을 이론적으로 해설한 논문들이 집필되었다. 우리 민족의 유구한 차 문화와 각 지방의 특산품

식을 비롯하여 민족의 향취가 넘쳐나는 다양한 음식문화를 연구보급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성과가 이룩되었다. 우리 나라의 약초재배역사와 승마습속, 조신육에 대한 풍부한 상식을 주는 편지물들은 전통의학, 민족체육, 민족의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해주고있다.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문화를 더욱 빛내기 위한 사회과학자들의 과학연구활동은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본사기자

6월의 절기와 민속

6월의 절기로는 망종과 하지날이다. 동지날에 가장 길어졌던 밤시간이 그후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하여 하지날에 가장 짧아지며 낮시간은 1년 중에 제일 길다. 망종은 보리를 베고 벼모를 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예로부터 《보리는 망종전에 베라.》는 속담이 전해져오는데 이맘때가 되면 보리장마라고 하는 비가 내려 밀보리를 빠른 기간에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애써진 알곡을 썩일수 있기때문이였다.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망종이 되기전에 밀보리밭을 제때에

하여 밭을 갈고 알곡이 허실되지 않게 하였으며 벼모내기 하였다. 하지는 계절적으로 보나 영농공정으로 보나 한해 농사에서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는 모의 환갑》이라는 속담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늦어도 하지전에 모를 낱아 그해 농사에서 좋은 결실을 거둘수 있다는것을 이르는 말이다. 우리 선조들은 6월의 절기에 따른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6월은 산나물도 많이 자라고 남새도 수확하는 계절이므로 여러가지 산나물과 보리, 오이 등을 가지고 음식

을 만들어 식생활에 리용하였다. 18세기 실학자였던 박지원이 쓴 책 《과농소초》에 의하면 망종때 가을한 보리로 식초도 만들었다고 한다. 이 절기에 여러 지방에서 취떡, 꿍치나물 등을 만들어 먹었다. 하지만 전반적지방에서 많이 만들어 먹은 음식은 썩으로 만든것이었다.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은 썩떡이다. 이 시기 처녀들은 봉선화물들이기를 즐겨하군 하였다. 올해의 망종은 6월 5일이 고 하지는 6월 21일이다. 본사기자

목덜미안마의 효과 목덜미안마로법은 정보전달물질인 뇌척수액이 잘 흐르게 하는 안마로법이다. 제3뇌실에서 만들어진 뇌척수액은 온몸의 신경세포들의 영양소인 동시에 정보전달물질에 의하여 각 기관과 내장의 활동기능을 보장한다. 목덜미는 인체의 5장 6부 장기들의 기능상태를 반영하는 집중부위이다. 그러므로 목부위안마를 자주 하면 해당 장기들을 직접 치료하는 효과를 얻을수 있다. 목덜미안마는 아무때나 해도 좋지만 밤잠자기 전에 하는것이 제일 좋다. 목덜미에 위치한 장기들의 자궁위치는 중심부위에 전위된, 방광, 자궁이 있고 좌우에는 중심부위로 들어오면서 관상동맥(머리위, 귀위위치), 심근, 호흡기, 콩팥, 담낭, 위, 취

장, 맹장, 비장, 간, 결장의 순서로 되어있다. 두손으로 중심부위로 들어오면서 적당한 세기로 천천히 30~50번씩 주무른다. 눈을 밝게 하는 마시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후 다리를 쭉 펴고 두 발가락을 당기면서 두손바닥을 마주대고 2~3분간 비빈다. 다음 코등을 2~3분 비비고 두귀를 두손으로 2~3분 비빈다. 다음 두팔을 옆으로 벌렸다가 목에 가져다대고 앞가슴을 앞으로 내밀면서 좌우 허러운 등을 2~3분간 반복한다. 6개월간 이 운동을 한 결과 46~56까지 돋보기 1~3.5까지 끼던 사람이 안경없이 바늘에 실을 끼게 되고 신문도 볼수 있게 되었으며 협심증으로 부정맥이 오던것도 거의 없어졌다고 한다. 본사기자

콩의 원산지인 우리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콩으로 만든 여러가지 음식들이 식생활에 널리 이용되어왔다. 그중에는 민속음식인 두부도 있다. 두부는 물에 불군 콩을 갈아 걸러낸 물을 쪄서 서술을 치고 영긴것을 눌러 짜서 만든 음식이다. 옛 기록에 의하면 두부를 《포》(거품)라고 하였다. 처음 콩을 갈아 죽거리처럼 그대로 쪄면서 간을 친 음식(비지)에서는 형태상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으나 콩을 갈아 걸러서 쪄면서 간을 맞춘 음식에서는 서로 엉키여지는 형태상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이 최초의 두부였는데 그 이름을 순두부라고 불렀다. 그 후 엉키여지는 순두부의 성질을 리용하여 물거품처럼 찌르면 떠있는것만을 주머니같은데 넣고 눌러짜서 두부를 만들었다. 그리고 두부를 만드는 데서는 소금에서 녹아나오는 서술을 쓰는것이 더 좋다는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김치국물을 쓰기도 하였다. 함경도지방에서 모두부를 잔

치상에 떡과 같이 높이 쌓아 놓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은 고구려때부터 내려온것이라고 한다. 고려시기 두부는 대중음식, 의례음식으로 널리 퍼졌다. 이 시기의 책들인 《목은집》과 《양촌집》에 두부에 대한 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러 두부에는 새끼로 묶여 들고다니는 이리저리지 않다는 단단한 모두부, 처녀의 품고 싶은 손이 아니고서는 흐트러진다는 연두부, 굳어지기 전에 건져낸 순두부, 명주로 굳힌 비단두부, 배에 싸서 굳힌 배두부, 미꾸라지를 두부속에 넣은 약두부 등 10여가지나 있었다. 옛 문헌에는 두부는 맛이

좋을뿐아니라 부드럽고 연하여 특히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인기를 끌었으며 반찬중에서 가장 좋은것은 두부리라고 써여져있다. 두부를 식생활에 리용하여 오는 과정에 그것으로 여러가지 요리를 만들었는데 려사기록에 전해오던것만 하여도 순두부국, 두부장, 두부찜, 돼지고기두부장, 추어두부장, 두부전골, 굴두부장 등 그 가지수가 매우 많다. 《교사십이집》에 의하면 가늘게 썬 두부를 지짐판에서 지진 다음 닭국물에 넣어 쪄인것을 연포라고 하며 그것을 친구들끼리 먹으면서 즐기는것을 연포회라고 하였다. 우리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두부는 오늘 민족적향취를 진하게 풍기며 사람들의 식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정선은 17세기말-18세기를 대표하는 사실주의적풍경화가들의 한사람이다. 그는 그림을 잘 그렸을뿐 아니라 화법리론에도 밝았으며 심사정을 비롯한 여러명의 우수한 화가들을 키워냈다. 정선은 자연을 자기의 독특한 화법으로 생동하게 형상하여 18세기 풍경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의 산수화들은 명승지를 비롯하여 어디에서나 흔히 볼수 있는 산들과 호수 등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그린것이며 매 작품에는 지명이 꼭 써여져있다. 《용천의 파도》, 《인왕산》, 《구룡폭포》, 《너럭바위》 등을 비롯한 그의 크고작은 여러 화폭들에는 조국의 자연에 대한 사랑이 다양한 회화적언어를 통하여 반영되고있다. 《구룡폭포》는 힘있고 재

미있고 정선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아 격조높이 구가한 예측적인 미술가였으며 진실하고 독특한 조형적형상을 창조하여 조선화의 사실주의적현현력을 풍부화한 우수한 화가이다. 본사기자

이처럼 정선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아 격조높이 구가한 예측적인 미술가였으며 진실하고 독특한 조형적형상을 창조하여 조선화의 사실주의적현현력을 풍부화한 우수한 화가이다. 본사기자

이처럼 정선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아 격조높이 구가한 예측적인 미술가였으며 진실하고 독특한 조형적형상을 창조하여 조선화의 사실주의적현현력을 풍부화한 우수한 화가이다. 본사기자



김치순두부

민족음식 - 두부

영키면서 떠있는것만을 주머니같은데 넣고 눌러짜서 두부를 만들었다. 그리고 두부를 만드는 데서는 소금에서 녹아나오는 서술을 쓰는것이 더 좋다는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김치국물을 쓰기도 하였다. 함경도지방에서 모두부를 잔

치상에 떡과 같이 높이 쌓아 놓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은 고구려때부터 내려온것이라고 한다. 고려시기 두부는 대중음식, 의례음식으로 널리 퍼졌다. 이 시기의 책들인 《목은집》과 《양촌집》에 두부에 대한 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러 두부에는 새끼로 묶여 들고다니는 이리저리지 않다는 단단한 모두부, 처녀의 품고 싶은 손이 아니고서는 흐트러진다는 연두부, 굳어지기 전에 건져낸 순두부, 명주로 굳힌 비단두부, 배에 싸서 굳힌 배두부, 미꾸라지를 두부속에 넣은 약두부 등 10여가지나 있었다. 옛 문헌에는 두부는 맛이

무 멀트 멀었다. 이때 놀람게도 남편이 눈을 번쩍 뜨더니 제법 생기가 있는 목소리로 《물 좀 주우.》 하고 말했다. 순희는 신기하게 생각하며 급히 밖으로 나가 물을 떠다 입에 대어주니 그는 한모금 마시고나서 《아니, 아까 물 좀 주나오.》 하고 순희를 번쩍 올려다보았다. 아까 먹은 물이란것은 비상을 탄 물이었다. 《이예, 어서 그 약을 더

무엇인지 먹고싶다는데로 주려무나.》 하고 마침 방안에 들어와있던 시아버지가 말했다. 순희는 하는수없이 비상을 물에 타놓고 밖에 나갔던 일을 이야기하였다. 한동안 아들의 얼굴을 지켜보고있다가 순희를 밖으로 데리고나간 김진사는 회파람소리를 내며 속삭였다. 《이예, 어서 그 약을 더

민족회화계의 재사들과 그 유산 정선과 독특한 산수화

치있는 필치, 폭넓은 공간구성 등으로 하여 정선의 화풍상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의 하나이다. 화면중심에서 쏟아져내리는 폭포와 그것의 수직운동에 대치하여 가로방향으로 힘있게 뻗어나가면서도 안착감을 주는 소나무들은 화가의 뛰어난 묘사기량을 잘 보여준다. 《너럭바위》는 형선을 기본으로 하여 화면을 구성한 그림의 대표적인 실례이다. 그림에서는 여름철 시내에서 자연을 즐기는 두 인물의 심정이 경쾌한 필치로 전달되고있다. 정선은 또한 《가아름 타는 로인》, 《봄비》를 비롯한 인물주제의 그림을 그리면서 인민생활을 자연의 아름다움들 기왕 구하지 못할 자식이나 안될것 없다. 머느리가 여허할바를 불러하는것을 보고 그는 곧 방으로 들어가 비상을 꺼내었다. 시아버지에게서 비상을 받아든 순희는 무엇인가 깨달은바가 있어 그것을 물에 조싹조싹 풀었다. 이윽고 비상을 풀 물그릇은 경완에게로 넘어갔다. 경완은 그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그러자 이어 기적이 일어났다. 경완의 얼굴과 몸에 있던 종창이 하나둘 사라지더니 그의 건강이 눈에 띄이게 회복되어갔다. 김진사가 곤경에 처한 하민정을 구해주니 하민정집에서도 그 역시 은혜를 몇몸으로 갚았다. 그러나 의리를 가장 중히 여기는 순희가 나서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일은 결코 생기지 않았을것이었다. 사람들은 순희의 아름다운 마음씨와 지극한 정성이 두 집의 불행을 가져주고 다 죽게 된 목숨도 살린것이라고 서로 전하며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끝)



《봄비》 (정선 작)

우리 선조들의 꽃정서

암닭의 다리

어린 두 형제가 있었는데는 왜 수탉보다 짧나? 형: 《바보같은거, 그것도 불라? 다리가 길면 알을 낳을 때 높은데서 떨어져 깨질게 아니야?》

사화

우연한 기적 (4)

글 권영희, 그림 채대성

그러던 어느날 밤 순희는 무서운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날 경완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지 안해인 순희도 잘 몰라보고 헛소리를 하군 하였다. 그의 얼굴에는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어리여있었다. 순희는 남편에 대해 별로 애정을 느낀적 없었다. 그러나 이 집에 들어와 그를 간호하는 동안 못된 병에 걸려 병상에서 꽃다운 청춘을 보내는 그를 무척 동정하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자! 순희는 이렇게 결심하고 정성을 다하여 간호하였다. 그토록 애를 썼지만 남편의 죽음은 어느새 문턱에까지 다가왔다. 순희는 세상에 미련이 없었었다. 팔자가 기박하여 못된 병에 걸린 남편을 살리지도 못하니 살고싶지 않았던 것이다.

남편을 따라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한 순희는 몸에 지니고있던 비상을 꺼내었다. 너자로서 용납 못할 굴욕을 당하였을 때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몸에 지니고있던 약이었다. 순희가 그것을 물에 타서 막 마시려는 순간 문득 집에서 자기를 생각하며 걱정하고있을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약대접을 도로 방바닥에 내려놓고나서 살머시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뒤동산에 올라가 멀리 친정쪽을 향해 마지막으 하직인사라도 하고싶었던 것이다. 동산에 올라보니 밤은 깊어지고있었다. 순희는 멀리 친정집이 있는 쪽을 향해 깊이 허리를 굽혀 절을 하였다. 《아버지, 어머니! 너무

일찍 절을 떠나는 이 딸을 용서하세요. 소녀는 전생에 죄많은 병든 남편을 만나고 또 정성도 부족하여 남편을 살리지 못하였습니. 죄많은 소녀는 이 세상을 하직하려 하오니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그는 입속으로 조용히 이런 말을 하고 땅에 폭어퍼러져 슬프게 흐느껴울기 시작하였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한동안 울고난 그는 옷대 무시를 단정히 바로잡고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올린 다음 집을 향해 걸음을 옮기었다. 병자가 있는 방으로 돌아온 순희는 남편의 머리맡에 빈 대접이 있는것을 보고 소스라쳐 놀랐다. 남편이 독약을 넣은 물인 줄 모르고 들이마신것이 틀림없었다. 순희는 어쩔줄 몰라 남편의 얼굴을 지켜보며 사시나



비상이 더 없기도 하려니와 그것을 알고야 어찌 먹이랴. 《아까 무슨 물을 먹었기에 저에가 그것만 찾느냐?

라주어라. 비상은 사랑방에 얼마든지 있다. 그것을 여성 사람이 먹으면 죽으니 그런 약을 가진자가 먹으면 약이 되나부다. 실사 그 약을 먹고